

사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 평소 우리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했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장애인들을 쉽게 만난다. 지하철, 버스, 기차 등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다보면 거의 매일같이 그들의 삶을 위해 동정을 호소하는 애절한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지나쳐 버리기 일쑤이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수는 1백50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약 5백만 명 정도는 충분히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유엔이나 국제보건기구에서 연구,

5% 정도일 뿐이다. 따라서 국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급히 세우길 촉구한다.

첫째,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을 비롯하여 모든 종단들은 장애인의 포교를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그들의 교육 및 복지 시설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얼마 전 TV에서 보니까 어느 저능아 수용시설에서 밥 먹기 전, 잡자기 전에 하나씩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 매스컴의 편파 보도 측면도 지나쳐 버릴 수는 없지만 우리 불교계가 이러한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포교에 소홀히 했던 점을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및 훈련, 요양을 위한 포교를 담당할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현재 중립 동국대학교

동체정신으로 재활복지를

조사한 장애인 출현율은 세계인구의 약 10%로 추정된다. 특히 현대 산업사회는 인간 소외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갈등이 심화되고, 정신 지체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 그 심각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자비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불교계가 이렇게 심각한 장애인 복지에 너무나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니면 관심이 많지만 보살도의 실천이 부족해서인가?

장애인의 재활이나 요양에 필요한 복지시설로 불교계가 운영하는 종합복지관이나 재활원은 10여개에 불과하고, 장애인을 위한 불교 후원단체도 두 곳 뿐이다. 이는 기독교나 천주교 등 타 종교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열악한 현황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밝힌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 시설이 모두 2백여개소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불교계의 시설은 약

나 중앙승가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학과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과 종단차원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등을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법률적인 장애인포교 대책위원회와 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마련하고 재정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실제로 부처님의 사상과 정신에 입각해 보면 장애인 복지사업을 비롯한 사회구제사업은 불교의 제 1차적 불사라고 할 수 있다. 법당을 크게 짓고, 탑을 높이 세우는 불사도 필요하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중생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보살도의 실천이 대승불교의 근본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 장애인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불자들은 장애인들과 고통을 함께하는 자비정신을 발휘하여 장애인 포교에 동참이 되자.

열린마당

장애인 포교

원상 스님



〈화엄경〉 여러출현품에 "일체중생에게는 여러와 같은 지혜덕상이 본래 갖추어져 있으나 다만 망상 집착 때문에 속박이 있다. 만약 이를 여의게 되면 부처님의 일체지·자연지·무애지가 현전하리라" 하였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은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 보이시고 중생을 구제하시니 반이바라달라의 심오

뜻은 일반대중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맹인을 보면 재수가 없다는니, 혹은 지체장애인을 무는 전염병 환자처럼 여겨 회피하거나 꺼려함이 없어야겠다. 선천적으로 신체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장애인도 있었지만 그들이 많은, 즉 후천적 장애인들이 요즘에는 더욱 많다. 언제 장애인

소외받는 이들 감싸는 일 불교도 사명 특수 시설 법당 지역마다 설립 되어야

한 바퀴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게 널리 전파시켜 모든 중생을 요양케 하는 것은 불제자의 사명이다. 특히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포교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지비의 종교라 하여 미물중생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불교가 그동안 갈 곳 없이 외롭고 병들어 소외된 자들에게 소중하고 병대했음을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첫째는 장애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설을 갖춘 법당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개인의 원력으로 장애인포교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종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는 가능할 것 이다. 방법은 수많은 사찰 가운데 지역별로 하나씩만이라도 장애인 특수법당으로 지정해 사용케 하는 것이

이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을 유별난 시선으로 본다가나 특별한 대접을 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그들 나름대로 갖고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마음의 장애를 앓고 있는 동등중생이다. 장애인을 물질적으로 도와줄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과 애정을 나누는 도반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 장애인 포교는 활성화 될 것이다. 〈해광명인복지회 지도법사〉

방귀희 법사



불교계는 아직도 장애인포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장애인 수용시설면에서도 타종교의 장애인 수용시설이 70여개가 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교계의 수용시설이 10여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그동안 장애인들에 대한 포교의 현황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대상으로서의 포교가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의 장애자들이 더 많다. 비록 육체적인 장애로 생활에 불편함은 있지만 그 마음만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불심으로 가득한 장애인 불자들에게 대한 종단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당장 어떤 가시적인 관심보다는 진정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불교계의 장애인에 대한 인

교계 수용시설 불과 10여곳... 확충절실 동정보다 부처님 통한 자유찾는 길 열

'일체중생 실유불성'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불성을 지닌 동등한 존재로서 장애인을 적극적인 포교의 대상으로 삼아달라는 것이 장애인들의 희망이자 요구 사항이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도 자신의 삶은 자기가 책임진다

는 생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장애가 정상이니 하는 분별심을 떠나 장애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세상에는 육신은 성하지만 마음이 비열어지고 비

식의 전환을 꾀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감성적 동정보다는 장애를 보완하는 구체적인 방법의 모색이 불교를 통해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한국장애인인민협회장〉

시론

'참 일꾼' 뽑는 감시자 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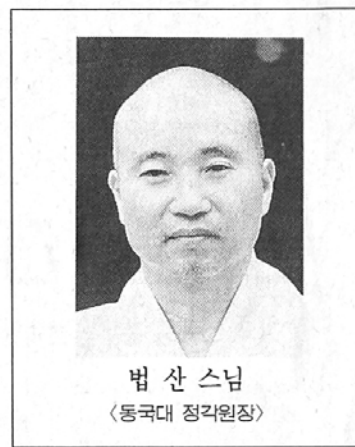
부처님의 법 안에서 세상의 모든 일을 상항에 따라 적용하며 대중을 유익하게 할 수 있으며, 부처님의 실상묘법을 수행하고 체득하고 사회 대중을 위하여 회향하는 것이 불제자의 의무이다. 따라서 불교는 사회의 상황변화에 제발리 적응하고 대처하여야만 마니보수의 불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당시 인도사회의 모든 상황과 변화를 잘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여 교화하였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부처님의 실법이 당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수기 삼법(隨機三法) 수응능력에 따라 설법'이라 하고, 부처님의 처신(處身) 사회를 적절하게 지도하였으므로 '수유응신(隨應而應) 계층에 따라 일맞게 처신'이라 한다.

총무원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도조직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기초 사찰의 신도조직을 필두로 각 행정단위별 사암연합회 및 신도연합회를 구성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조직이 곧 중앙으로 연결되며, 나아가 종단협의회에 모여서 한국불교의 총합체를 이루어 공명찬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감시와 계몽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또한 기회주의적이고 정실에 치우친 인물보다 공정하고 덕행이 원만한 인사가 당선되도록 지도하는 적극적 모습을 보인다면 극성스런 타종교의 횡포와 정치적 역할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육석가려 사회정의 실현

불교가 근본법인 불법의 진리에서는 실상상근대 젊은 불자들이 불교의 새로운 대사회적 대응을 모색하는 각종 모임으로 사회단체를 구성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참제자 노릇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참으로 다양한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아직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는 불교의 오랜 관행이 이들을 수용하거나 뒷받침 하지 못하는 점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법산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한대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무소유나 무소속의 의미는 이민과 고집을 버리고 시기와 편견을 떠나 보편적이고 타당성있는 자유평등의 반야를 실현하는 것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불자가 부처님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해 개혁의 바람으로 불교계에는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지만, 아직 타성과 편견으로 고정관념의 껍질을 깨뜨리지 못하는 출가나 재가불자들의 두께가 두둑하게 남아 있다.

대중에 유익한 역할 찾기

이제 불교는 정부의 시너노릇도 그만해야 하며 타종교의 비이탈도 그만 받아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 사회적 역할을 상기하는 불자라면 어찌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할 수 있겠는가.

한국불교의 범종단연합체인 종단협의회에서는 현실사회의 제 문제에 대한 대책과 실용적이고 타당성있는 방안을 연구수립하여 전국불교의 한 목소리와 하나의 모습이 국가사회의 발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불교의 종가집이며 대명사적인 조계종은 개혁사업이 순조롭게 되어가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당면과제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정책과 21세기 불교발전을 위한 연구가 보다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혁과정에서 부정과 결탁에 연루되어 불교의 면모를 망가뜨린 조계종 전국신도회가 해체되어 있으나 이후 신도회도 없는 종무행정기 계속되고 있다.

목전에 닦힌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불교신도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물론 각 사찰의 자비정신과 사선이 크게 주목되었지만, 이대로 무심히 앉아서 볼 수 만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젊은 불자들이 불교의 새로운 대사회적 대응을 모색하는 각종 모임으로 사회단체를 구성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참제자 노릇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참으로 다양한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아직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는 불교의 오랜 관행이 이들을 수용하거나 뒷받침 하지 못하는 점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이번 실시되는 지자체선거에서 불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미래 한국불교가 지방화시대의 주역이 되느냐, 사회의 뒷전으로 밀려나 종전보다 더 낙후되는 기로에 섰다고 본다.

불교계의 발빠른 변신과 행보만이 불교의 앞날을 예측해 줄 것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덤벼들라는 것은 아니다. 선정적으로 이성을 찾고, 지혜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다.

앞으로 연속 단계를 각종 선거와 제도의 변화에 대비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각계의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준비하지 않은 초목은 겨울을 견디고 봄날에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따라서 각 사찰의 신도단체와 승가의 단체, 그리고 환경·지자재선거·교포문제·통일·경제 등 각종 사회단체는 부처님 정신을 현실 속에 구현하여 대중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그러므로 현실정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사회적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는 것이 절실한 요망된다.

공사상이 그날 있으라는 것이 아니요, 자비사상이 멀거나 담박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적적(寂寂)의 선정은 엄정을 의미한다면, 용성(龍聲)의 지혜는 밝은 판별을 의미한다. 용과 그릇에 육식을 가려 사회정의를 실현케 하는 불교가 될 때 불교정토 실현의 날은 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6월 실시되는 지자체는 불교인의 사회정의감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현대 만평 박구원



장애인에게 빛을...

담화문

- 4. 10, 1주년을 맞이하여 -

2천만 불교도와 국민 여러분!

410 승려대회가 치뤄진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종단은 참으로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사람들이 불교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때, 우리 불자들은 현실에 절망만 하지 않고 보살의 원력으로 일어선 어려운 종단 현실을 새로운 문명을 제시하는 불교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은 다른 10년보다 더욱 알차고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작년 4월 10일의 승려대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범승가 종단 개혁 추진회'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제방의 남자와 학인 스님들, 신심으로 굳게 뭉친 불자들이 함께 모여 온갖 어려움을 딛고 새 불교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원로 스님들의 용단과 지지는 불교개혁을 이루는 데에 가장 중요한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사부대중은 종단의 민주적인 운영, 불교의 자주화를 염원해왔으며, 사회의 문제를 외면해온 운문적 수행가풍에서 탈피하여 역사와 사회의 주인이 되는 불교이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염원의 총화가 조계종 개혁회의로 그리고 현재의 종단으로 건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혁회의는 종단의 바람직한 미래상 설계에 전 종도의 참여를 유도하며, 그에 부응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개혁회의가 더욱 값진 평가를 받는 것은, 스스로 획득한 종단 운영권에 안주하지 않고 전 종도들의 뜻을 받들어 종단 운영권을 이양하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8개월의 한시적인 시한은 사실 제도개혁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에도 벅찬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개혁회의는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종헌과 종법을 바꾸고 만들어 민주적인 종단운영의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개혁회의가 출가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그를 출범시킨 4월 10일의 승려대회가 있었기 때문이며, 정말로 순수하게 불교와 종단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개혁회의를 둘러싸 의회하고 성원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종단은 전 종도들의 뜻이 담겨 있는 합법적인 선거 절차를 거쳐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개혁회의가 일구어 놓은 제도적 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친애하는 불교도와 국민 여러분!

현재의 종단은 결코 개혁회의의 성과를 그냥 받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혁회의가 개혁의 기초를 닦았다면, 현 종단은 개혁의 완수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범종추로 시작하여 승려대회로 고양된 개혁의 열기를 제도의 틀에 안착시키고 종단을 바꾸고, 불교를 바꾸

고 나아가 우리 불교가 서있는 사회현실을 바꾸는 힘으로 이끌 것입니다. 종단의 핵심은 문제와 교육, 역경, 사회복지, 가람불사 등 현안 과제를 차분히 풀어나가고 근본적인 중도들의 의식 개혁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종단이 펼치고 있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도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향도하는 의식개혁의 하나인 것입니다.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마음의 근원을 깨닫기 위하여 수행정진하면서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과 민족과 인류와 자연이 나와 하나임을 알고 자비심으로 이타적인 보살행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믿음과 실천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전 불교도들이 앞장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민족의 소망인 통일을 위해 앞장서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생태계를 지키고,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여성, 어린이,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켜가는 불교가 되는 것이 깨달음의 사회화입니다. 이것이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는 불교의 역할입니다. 인간존중의 부처님 가르침을 이 사회에서 생생하게 되살려내는 불교야말로 대립과 분열로 가득한 인류를 지키는 보루요, 파수꾼인 것입니다.

2천만 불교도 여러분!

종단 내적으로도 별원으로 승격한 교육원과 포교원의 활동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청정한 수행가풍을 전파하는 과제는 잠시도 늦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육불사의 과제가 올 한해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하합니다. 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스님들을 육성하는 문제는 몇몇 개인이나 사찰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모든 불자들의 원력과 정성이 모여야만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승가대학 이천이 원만히 회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되는 과제를 종단이 바로 행한다면 4.10의 열기는 종단을 지원하는 굳센 힘이 될 것이지만, 혹시라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감시와 체력의 손질이 될 것입니다.

이제 4.10 승려대회 1주년을 맞이하여 개혁불사를 더욱 힘차게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사부대중 모두에게 드리며,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불조(佛祖)의 가피가 항상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39년 4월 10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